

번호 21-2

제 목	국 문	일부 대학생들의 생활습관 및 비만도에 관한 조사 연구				
	영 문					
저 자 및 소 속	국 문	송종일*, 최중명, 최봉근, 윤태영, 박순영, 유동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				
	영 문					
분 야	보건관리 ( )	발표자	일반회원 (○)	발표형식	구 연 (○)	
	역 학 (○)		진 공 의 ( )		포스터 ( )	
환 경 ( )						
진행 상황	연구완료 ( ○ ), 연구중 ( ) → 완료 예정 시기 : 99년 9 월					
<p><b>연구목적 :</b>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의 정도는 적으나 여러 질환의 원인이나 또한 영양 및 식이의 서구화 패턴에 의해 향후 비만의 유병율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고, 국내에서도 현재 비만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반 대학생들의 비만도 및 생활태도에 관하여 조사함으로써, 비만과 사회생활태도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며,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 청장년 층의 표준체격 및 비만 유병율을 알아내고, 95년도 조사부터 현재까지 변화되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비만에 관한 역학자료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비만의 진단점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고자 한다.</p> <p><b>연구방법 :</b> 서울시내에 소재한 K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장, 체중, 비만도 검사 및 생활태도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으며, 표준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의 방법으로 비만도 측정 전에 배부하여 기입하였고, 체구성 성분 측정 등의 모든 측정이 끝난 뒤에 다시 한번 누락된 사항들에 대하여 재 기입함으로써 탈락율을 감소시켰다. 연구대상의 생체계측은 신장, 체중, 허리, 둔부 둘레 및 체구성 성분을 측정하였으며, 본 연구에서의 체구성 성분 측정은 BIA 방식 중 다주파 방식의 InBody 3.0 기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.</p> <p><b>연구결과 :</b>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소재한 K대학 학생 4개 학년 858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되었으며, 신장, 체중, 설문조사 및 비만도 검사에서 자료가 누락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820명(95.6%, 남자 506명, 여자 314명)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</p> <p>1. 조사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0-24세 사이가 남자 60.5%, 여자 54.8%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, 19세 이하의 남자 28.4%, 여자 43.0%를 보였다. 학생들의 흡연상태는 남자에서 37.4%가 흡연자이고 금연자가 62.6%였으며, 여자는 92.0%가 금연자로 나타났다. 일본비만학회에서 제시한 비만분류법에 의하면 남자에서 25.9%가 표준을 벗어나 과체중 및 비만체형을 보이고 있으나 여자에서는 10.8%가 비만체형을 보이고 있었다.</p> <p>2. 학년별 체격 비교에서는 남학생에서는 신장, 체중, BMI, 비만도 및 체지방량에서 학년간 통계적 유의성을 볼 수 없었으나, Waist/Hip ratio에서는 남자에서 1학년이 0.80으로 제일 낮고 학년이 올라갈 수록 증가하여 4학년에서는 0.82를 보였다. 여학생의 경우에는 체중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, 1학년에서 체중, BMI, 비만도 및 체지방량이 높게 나타났다.</p>						

3. 연령군별 체격 비교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연령군간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여학생에서는 15-19세군의 체중이 54.8 kg으로 제일 높게 나오고 25-29세군에서 51.2 kg으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. 비만군별 비교에서는 체중, BMI, 비만도, 체지방량 및 WHR 모두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신장은 남녀 모두 비만군에서 제일 높게 나타났다.

4. 비만군별 체구성 성분에 대한 분석에서는 세포내액 및 세포외액의 경우 저체중군으로 갈수록 비만군에 비해 증가되는 양상을 보여 체수분량이 체중의 59.9%를 보였으며 비만군에서는 50.4%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. 단백질량에 있어서도 저체중군이 체중의 21.8%를 보인 반면에 비만군은 18.4%를 보여 역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. 무기질량 역시 비만군으로 갈수록 낮아졌으며, 지방 및 체지방적을 비교한 결과 지방량은 저체중군이 13.6%에서 비만군 27.2%으로 증가되었다. 여자의 경우 역시 남자와 같은 양상을 볼 수 있었다.

5. 흡연에 따른 체구성 성분 분석에서, 남자의 경우 체구성 성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, 여자의 흡연군의 경우 체지방율이 25.9%로 비흡연군의 28.6%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, 세포외액 및 세포내액, 단백질량 및 무기질량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.